



수상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수상 인명구조원들이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 실내수영장에서 여름철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요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성에 지상 200m 기상관측탑

133억원 투입 득량만 간척지 5만㎡ 세계 수준 관측소 건립

보성에 국내 최초의 지상 200m 높이 기상종합관측타워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표준 기상관측소'가 들어선다. 광주지방기상청이 5일 공개한 '글로벌표준 기상관측소' 설립 추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사업비 133억원을 투입, 보성군 득량면 간척지 일대에 5만513㎡(1만4천400평) 규모의 기상관측소를 설립한다.

■보성 글로벌표준 기상관측소 위치도



기상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보성군으로부터 1만4천648㎡(4천400여평)를 무상 임차한 데 이어 올해 3만5천865㎡(1만여평)의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

은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관측소 설립을 바탕으로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지구환경변화에 대비, 전 지구적인 기상관측 기초연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상 200m 높이의 고공타워에는 단순한 모니터링 시스템 2종과 대기환경모니터링 시스템 7종 등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황사, 강수, 풍향과 풍속, 기온, 습도 등의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곳에는 특히 국내 최초로 대기층별 종합 감시를 위한 '고공타워(기상종합관측타워)'가 설치된다. 고공타워 설치와 시스템 구축에만 기상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공타워 관측'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현재 일본(220m)과 중국(300m)에 한정

돼 있다. 보성 기상관측소에는 또 국내외에서 새로 도입된 기상장비를 비교·검증하는 국제비교관측센터도 들어선다. 이 센터는 강수량과 일사·일조량, 풍향, 풍속, 온·습도, 황사, 이산화탄소 등의 최신 관측장비를 비교하고 실험하게 된다.

글로벌표준 기상관측소 설립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인 2009~2010년에는 사업부지를 매입, 관측환경과 토대를 구축하고 올 10월께는 해남에 있는 국가위험기상집중 관측센터도 옮겨 올 예정이다.

구축 및 안정화 사업이 이뤄지는 2단계(2010~2011년)에는 '고공타워(종합기상관측타워)'를 설치하고, 국가비교관측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종 단계(2012~2013년)인 운영 및 발전단계에 들어서면, 기상청은 기상체협관과 기상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올 수능시험 무엇이 달라지나 원서 교부·접수 마감 6일 앞당겨 OMR 카드 십의 자리 '0'도 정답

11월12일(목) 시행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문제지에 표지가 더해지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이 6일 앞당겨진다.

수리영역 단답형 문제의 OMR 카드 표기법이 바뀌며 여러 권으로 된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문제지가 한 권으로 통합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계획이 6일 공고된다.

올해 수능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선 각 영역 시험 시작 10분 전에 나눠주는 문제지의 앞면에 표지를 붙였다는 점이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시간 전에 미리 푸는 폐단을 없애려는 방편이다.

수리영역 단답형 문제의 정답이 한자릿수이면 OMR카드의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해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도 새롭다.

예컨대 정답이 '8'이면 '08'이나 '8'로 표기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여러 권으로 분리된 4교시 사회탐구영역(3권), 과학탐구영역(2권) 및 직업탐구영역(5권)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2권) 문제지를 영역별 한 권으로 합친 것도 작년과 다른 점이다. 다만, 직업탐구영역 시험지는 올해 두 권으로 이뤄진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평가원의 수능 시험장 준비와 응시자 인적사항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지난해보다 6일 앞당겨진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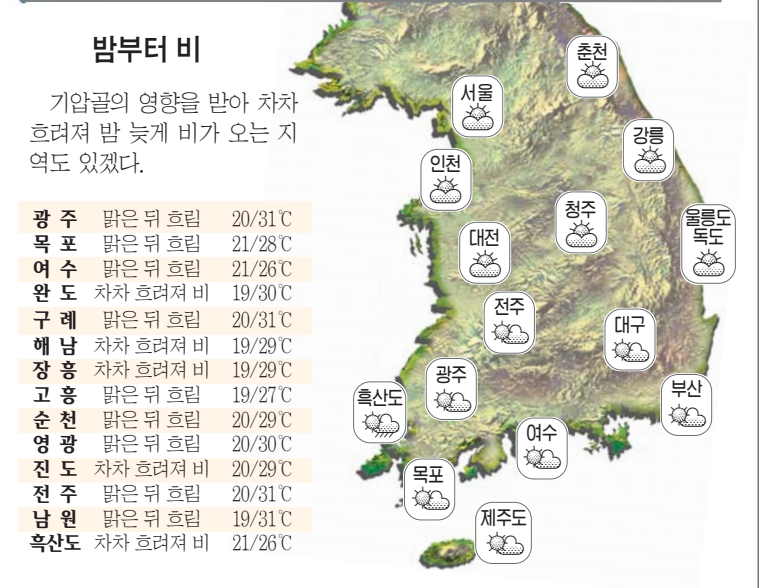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해 수능과 같다.

채점은 평가원이 주관하고 성적은 12월9일까지 통지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게 하고자 수능과 같은 형태의 모의평가를 9월3일 실시할 예정이다. /연희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4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19시 12분 달질 03시 59분



지역	기온	강수량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울	20/31℃	0.5~0.5mm	높음	경고	높음
부산	21/28℃	0.5~1.0mm	높음	경고	높음
대구	19/30℃	0.5~1.0mm	높음	경고	높음
대전	20/31℃	0.5~1.0mm	높음	경고	높음
광주	19/29℃	0.5~1.0mm	높음	경고	높음
전주	19/29℃	0.5~1.0mm	높음	경고	높음
목포	19/27℃	0.5~1.0mm	높음	경고	높음
제주	20/29℃	0.5~1.0mm	높음	경고	높음
울릉도	20/29℃	0.5~1.0mm	높음	경고	높음
독도	20/31℃	0.5~1.0mm	높음	경고	높음

광신대학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1111-1114 / 1115-1116

학력평가 문제 유출... 경찰 수사 확대

서울 강남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EBS의 외주제작사 PD 윤모(44)씨와 서울 대치동 K학원 원장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해당 방송국 제작팀 사무실과 이 학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와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시험 전날인 3월10일 서울시교육청이 EBS로 보내온 문제 전부를 입수한 뒤 이를 조카인 김씨에게 유출하고 김씨가 문항 일부를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희뉴스

뇌수막염 추정 女兒 숨져

광주에서 뇌수막염으로 추정되는 질환을 앓던 여자 어린이가 사망했다. 5일 광주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C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모(3)양이 숨졌다. 이 양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고열

과 복통으로 광주시 남구 M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 오전 8시께 C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유족과 병원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한 결과 이양이 뇌수막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제주 열빙투어(고봉계)
 제주 열빙투어(고봉계)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투어입니다. 고봉계, 열빙, 투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이타리 가구 50% ▶
 이타리 가구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가구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와 소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타리, 직책, 장방, 산성물 침침**

명품아울렛-럭시티
 명품아울렛-럭시티는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명품을 모르는 명품시장, 특별할 할수님을 모십니다.**